



일본 기업, 3/4분기 경기체감지수 큰 폭으로 개선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은행이 9월 전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/4분기 조사에서 대형 제조업체의 단칸지수가 2를 기록함에 따라 지난 2/4분기 -9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단칸(단기경제관측)지수는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일본 전국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체감경기와 설비투자 동향을 지수화한 것임.
 - 동 지수는 기업경기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기업에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차감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경기전망이 낙관적임을 의미함.

- 대기업 단칸지수는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2/4분기에 급락했지만, 자동차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면서 3/4분기 조사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,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부 매체에서는 일본 경기가 'V자형'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.
 - 대형 제조업 단칸지수의 경우 16업종 중 10업종이 개선되었고, 특히 대지진 여파로 생산이 급감했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지수가 전분기의 -52에서 13으로 크게 개선되어 자동차부품 공급망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분석됨.
 - 이러한 지표 개선이 반영되어 9월 일본 국내 자동차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.7% 증가함.

- 또한, 대형 제조업체와 중소형 제조업체의 3/4분기 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6 포인트와 10 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대형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비제조업체들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수출 주도형인 일본 경제에 미칠 악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,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의 엔화 강세도 기업들의 심리를 억누르고 있음.
 - 이를 반영하듯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4/4분기 단칸지수 전망의 경우 대기업은 4에 그쳤고, 대형 비제조업체들은 3/4분기와 동일하게 1로 유지된 한편, 전기·기계제조업은 동 지수가 1 포인트 개선되었지만 그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.

(니혼게이자이신문, 마이니치신문, 토쿄신문 10/4)